

'남원 화장품' 소비자와 직접 만난다

개발행위허가 상담의 날 운영

12월까지 오프라인 상설 판매장 운영

남원시는 (재)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과 지역 화장품 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제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8월부터 12월까지 하나로마트 남원농협 고죽점에서 '남원 화장품 오프라인 판매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2026년 바이오산업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동안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되던 지역 화장품을 소비자가 직접 보고 체험한 뒤 구매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판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판매장에는 남원지역 화장품 기업 5개 회사가 참여해 스킨케어와 헤어케어 등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매장은 하나로마트 외부 출입구에 조성되어 방문객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제품 전시·판매뿐만 아니라 시연과 할인 행사 등 다채로운 홍보·판촉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남원 기업들은 지리산권 천연물 소재를 활용한 원료 발굴부터 제형 개발, 완제품 생산까지 뛰어난 전문적인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



남원시는 (재)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과 8월부터 12월까지 하나로마트 남원농협 고죽점에서 '남원 화장품 오프라인 판매장'을 운영한다.

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판매 공간이 부족해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이번 판매장 운영을 통해 기업에는 안정적인 오프라인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남원 화장품을 생활 가까운 곳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개장에 앞서 8월 초에는 시민 공모를 통해 판매장 이름을 선정한다. 남원 화장품의 청정 이미지와 우수한 기술력, 지역적 특색을 담은 명칭을

선정해 판매장 간판과 각종 홍보물에 활용할 계획이다.

안충모 남원시장은 “우수한 제품이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안정적인 판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오프라인 판매 사업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남원 화장품의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을 알리는 동시에, 지역 공모를 통해 판매장 이름을 선정한다. 남원 화장품의 청정 이미지와 우수한 기술력, 지역적 특색을 담은 명칭을

임실군, 매주 수요일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

임실군이 군민이 체감하는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 5일부터 매주 수요일 '개발행위허가 상담의 날'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에 속도를 낸다.

개발행위허가 '상담의 날'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정기적인 전문 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대리인 등 군민들에게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임실군청 3층 건설과에서 진행되며, 개발행위허가 직원이 전담으로 배치되어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령 및 규제 안내, 인허가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등에 관한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주요 쟁점 사항이나 복합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건축·산림·농지 등 관련 부서와 합동 상담을 추진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전화 예약(임실군청 개발행위팀 063-640-2233)을 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이후 대면 상담을 통한 사



전검토로 향후 인허가 접수 시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운영을 통해 사전 서류 보완 및 검토 과정이 원활해짐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서류 제출을 방지하고 인허가 처리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득수 군수는 “행정의 기본은 군민에게 먼저 다가가 민원 불편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는 것”이라며 “읍면장실 1층 이전과 개발행위허가 상담의 날 운영처럼 군민 눈높이에 맞춘 투명하고 명확한 대민 상담을 통해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군정 신뢰도를 계속해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개 모집

순창군이 군민의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서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개모집은 임실군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기존 추천 중심의 구성 방식에서 벗어나 군민에게 참여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군은 지역별 균형과 함께 청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확대해 지역성과 대표성을 갖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

할 방침이다. 공개모집 인원은 12명 이내로, 순창읍 2명, 나머지 10개 읍·면은 각 1명씩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와 두고 있는 주민 또는 순창군 관할지역 소재 기관·사업체에 소속된 사람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이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12일까지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순창군 기획예산실 방문 접수, 이메일 및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읍·면 생활개선회 하반기 과제교육 실시

임실군이 농촌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여성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2026년 읍·면 생활개선회 하반기 과제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은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관내 12개 읍·면 생활개선회원 540명을 대상으로 총 12회에 걸쳐 진행 중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생활개선회원의 실생활 활용도와 농작업 안전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 구성했다.

주요내용은 △개인에게 어울리는 색상과 이미지 표현방법을 알아보는 퍼스널 컬러 및 이미지 메이킹 교육 △스카프 연출을 활용한 이미지 메이킹 실습 △여름철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 예방교육 등이다.

또한 읍·면별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회원간 단체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공감과 소통의 시간도 마련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사랑이 꽃피는 우리집 2차사업 완료

남원시 자원봉사센터는 복지사각지대 가정을 대상으로 추진한 행복배달 프로젝트 '사랑이 꽃피는 우리집' 2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8월 5일 대상 가정을 찾아 관계 기관 및 자원봉사단체와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상 가구는 남원교육지원청이 발굴한 위기가정으로, 사례회의를 거쳐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로 선정, 해당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후주택 지붕을 제때 보수하지 못해 빗물 누수와 전기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방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번 사업은 남원로타리클럽, 남원사랑클럽, 120 민원봉사대의 재능나눔과 남원교육지원청,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원시가족센터의 사례관리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추진됐다.

정서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참여기관과 자원봉사단체가 새롭게 단장된 보금자리를 함께 둘러보며 가족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 한뼘 재능나눔가족봉사단은 축하와 격려의 자리를 마련해 의미를 더했으며, 참석자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공동·개별주택 가격 열람·의견 청취

임실군(군수 한득수)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공동·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공동·개별주택은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열람대상은 2026년 6월 1일 기준, 건물의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 26호이다.

의견청취 제도는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주택 소유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접수된 의견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가 개별 통지되며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설명회 열려

순창군이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군은 지난 4일 순창군립도서관 다목적홀에서 사업 선정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와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원 내용과 준수사항, 적립금 관리 방법, 만기 지급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했으며, 질의응



순창군은 지난 4일 '2026년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답을 통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

수도 참석해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며 사업 참여를 격려했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7일 만인공원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남원시는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만인공원 조성사업의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과 전락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7일 오전 10시 남원시청 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역개발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추진되는 절차로, 사업의 기본계획과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안), 전락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다.

만인공원 조성사업은 사업기간 2017

~2027년, 연 면적 82,635㎡로 사업비 30,441백만원(국 3,887, 시 26,554)로써 오랜기간 활용되지 못한 구)남원역 일원을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도심 중심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며, 만인공원은 만인의총과 광한루원 등 남원의 대표 역사·문화자원과 인접해 있어 역사와 문화, 휴식이 공존하는 새로운 녹색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의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경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바람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제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모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